

建設市場 開放과 對應方案

신 현 식*

우루과이 라운드協商으로 우리나라는 50억원이상의 公共建設工事を 1995년부터 開放하고 1997년부터는 모두 開放하리라는 報道가 있었다.

우루과이 라운드(UR)는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에 의해 1986년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多者間 貿易協商이다.

UR에서는 商品外에 農産物, 纖維知的的所有權, 投資, 서비스를 포함하는 15개 분야에 걸쳐 會員들간에 集中的인 討議로 開放을 위한 協商이 進行되어 1993年 末에 妥結되었다.

우리나라는 資本이나 技術의인 面으로 보면 開途國 立場에 서야하나 賃金の 급격한 上昇으로 先進國立場 支持로 옮겨 가는 애매한 位置에 있는 形편이다.

建設部門에 적용될 서비스의 概念은 持定한 建設工事を 外國業體가 受注하여 施工하는 것으로 外國의 人力, 資本, 裝備, 技術을 당해 公사를 施工하기 위해 제한된 期間에 限하여 移勉을 許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海外에서 受注한 것은 施工部門에 한정되어 있으나 先進 外國業體는 事業의 發掘(Project finding)부터 設計施工을 끝내고 維持, 補修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UR協商에서는 開途國에 대해서는 建設交易를 規制하는 각종 法規를 점진적으로 自由化하고 外口業體에 대해서도 入札資格부터 受注施工過程에 있어 內國人과 같은 待遇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美國은 內國民 優待政策(American Preference Policy)과 같은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 또 市場 接近(market ac-

cess)을 위해 建設공사에 있어서의 入札, 落札, 契約, 施工 등 工事遂行에 있어서 外國業體에 대한 實質的인 制限을 없애야 한다.

• 國內현실

우리나라 建設業체는 건설분야 즉 事業의 發掘, 企劃, 妥當性調査(feasibility study) 등에서 先進國과의 경쟁을 생각하기 어려울만큼 現격한 차이가 있다. 이 분야의 업무는 주로 政府次元에서 다루어 民間의 能力伸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例컨대 90年代에 이루어진 新都市 事業도 政府一角에서 立案하였었다.

狹意의 엔지니어링 分野에는 基本設計와 詳細設計가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基本設計能力이 開途國 水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重要한 建築物의 基本設計는 外國會社에 의존하고 있는 形편이다.

例컨대 최근에 新築된 63빌딩, 럭키금성社屋, 國際빌딩, 무역회관, 롯데월드 등의 基本設計는 모두 外國會社에 의한 것이다. 현재 施工中에 있는 포항제철의 경영정보센터빌딩도 日本의 建築設計會社에 基本設計를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國內에서 本(詳細)設計를 하였다. 영종도 新國際空港도 우리나라의 유신설계와 美國의 백텔사가 共同으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基本設計는 國內設計會社와 外國의 設計會社가 共同으로 參與케 하였다.

이와같이 우리는 엔지니어링에 약하지만 共同住宅建築은 우리의 基本設計 및 本設計로 施工하고 있는 長점을 지닌 一面도 있다. 數年前의

* 중앙대학교 교수

乙支路 再開發事業은 大韓住宅公社가 우리의 技術로 基本計劃부터 完工단계까지 責任지고 事業을 完遂한 좋은 例이다.

施工分野는 經歷을 쌓을 機會가 있었다.

1960年代에 시작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시작되면서 建設事業이 많아져 建設工事의 經歷을 쌓게 되었다. 1970年代부터는 小規模이기는 하지만 海外建設에 참여하였고, 1973년 油類과 동후 中東으로 進出하여 새로운 施工技術에 接하고 新技術에 관해서도 경험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技術은 우리나라로 移轉되지 못하였다. 勞動集約的인 事業을 爲主로 하던 時期였으므로 海外의 新技術을 國內工事に 채택함으로써 企業利益의 底域으로 不利한 待遇를 받거나 辭職하는 등으로 先進技術이 우리의 것으로 移轉되기 힘든 形편에 있었다.

• 外國業體

美·日 등의 大規模 建設業體는 EC(Engineering Constructor)企業으로 그 規模가 우리나라 建設企業에 비해 대단히 크고 人材를 重要視하며 전문가(specialist)를 존중한다.

美國의 大規模 建設企業은 高度의 知識, 集約的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뇌집단으로 design-constructor이다. 美國의 벡텔社는 EC部門 常勤 職員數가 35,000名이고 Alpa가 25,000名, Parsons가 8,600名 등으로 대단한 規模이다. 이 중 60%정도가 博士學位를 所持한 엔지니어이고 政治, 經濟, 法律, 社會, 經榮心理, 人類學, 考古學, 매스컴 등 거의 모든 分野의 專門家가 망라되어 大規模프로젝트에서는 數百名을 한組로 하여 動員할 수 있는 體裁를 갖추고 있다.

1990年度의 建設市場規模는 25,810억弗이다. 이 중 日本이 5,860억弗, EC가 5,678억弗, 美國이 5,094억弗이고 우리나라는 340억弗이다. 그리고 其他國家가 8,839억弗이다.

• UR에 對應

建設市場開放에 따라 우리나라의 建設分野도 先進外國企業에 의해 여러 領域에서 잠식이 深化될 것으로 豫상된다. 우리 企業이 가능한 빠른 時日內에 先進外國의 企業과 경쟁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르기 위해서는 開放 初期에는 外國企業과의 合作 등의 形式으로 技術을 移轉받아가며 能力을 伸張해 나가야 할것이다.

먼저 엔지니어링能力을 培養해야 한다. 狹意의 엔지니어링에 속하는 基本設計와 詳細設計(本設計)는 一般的인 建築物에 관하여는 우리 힘으로 解決할 수 있으나 尖端 建築物인 인텔리전트 빌딩 및 持殊 建築物에 대하여는 基本設計能力이 先進國에 비해 뒤지고 있어 이 分野의 能力을 伸張시켜야 한다.

廣義의 엔지니어링에 속하는 컨설팅에 대하여는 先進外國에 現격히 뒤지고 있으므로 國內企業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機會를 부여하여 能力을 伸張시켜야 한다.

또 우리나라 企業이 意識을 改革하여 人材를 重要視하고 專門家를 尊重하는 風土를 造成해야 하며 技術을 開發하여 蓄積하고 企業間의 協力분위기를 이루어 外國企業과의 경쟁을 可能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經營資源을 擴充해야 한다. 資本力을 키우고 人材를 育成하며 技術을 開發하여 適用 하므로써 自社의 特化 事業 種目 卽, 專門化 種目を 뚜렷이 하여 社會的으로 좋은 評價를 얻을 수 있도록 하므로써 國際 경쟁력을 強化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企業이 近代化를 促進하여 經營體를 비롯한 全會員이 團結하여 한덩어리가 될 때에 外國企業에 비해 체가가 작지만 빠른 고추가 되므로써 경쟁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